2015 5. 24 성령 강림 대축일

제 1 독서 : 사도행전 2,1-11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제 2 독서 : 고린도 1 12,3 ㄷ-7.12-13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복 음 : 요 한 20,19-23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 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성당의 한 어린 신자가 살인을 하였습니다. 16 살 어린 나이에…… , 그 아이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저에게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이 아이는 그래도 은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통절하게 반성 하면서 그 감옥안의 삶을 받아들이고 사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에게 편지를 쓴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 성당에 자기 친구들이 많은데, **나와 같은 경험을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우리자신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간을 못합니다. 내 눈에 콩깍지가 씌워 있기 때문인데, 그 콩까지가 벗겨졌을 때에,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반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이 다 그런걸 어떻게 해! 하면서 세상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평화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또 사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느님을 향하여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이 세상것에로 향하여 있는가?** 이 세상 것에 향하여 있는 분들은 힘듭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하느님께 향하여 있는 분들은, **힘이 들어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 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옛 성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받은 고통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이었지만 그분들은 그것을 받아 들이셨습니다. 그것도 기쁘게 받아 들이셨습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고통을 이겨 나갈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입니다.** 오늘 제 1 독서로 돌아가면 성령의 역할이 나옵니다.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로 묶는 역할입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지칭할 때에 바로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창조주의 역할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할 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감흥을 받아서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바로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 입니다. **내 이웃을 하나로 묶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때, 바로 성령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지금도 성령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꾸 공동체를 분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거역하는 죄, 나를 믿지 않는 죄 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헛되게 이용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욕심을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를 할 때에, 그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자신이 위이기 때문입니다. 2 독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오로 성인은 참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참 지식인 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조리 있게, 우리 일상 생활에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성령의 은사는 각각 다 다르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지체들, 머리, 팔, 다리, 눈, 코, 귀, 입 이것을 보면 다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는데 어느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한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각자들도 하느님 앞에서 각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바로 하느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과연 무슨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과연 그 은사로서 우리공동체를, 우리가정을, 우리 사회를 하나로 엮는 역할을 하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받았

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견진을 통해서 성령의 칠은과 하느님의 은사를 각각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을 묵혀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대축일을 지내면서 다시한번 우리 스스로 마음을 여십시요**.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비집고 들어 오실 수가 없으십니다. 또 안에 계셔도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자존심에 꼭꼭 둘러 싸여 있고, 또 문을 꼭꼭 걸어 잠갔기 때문에 그 분께서 활동을 못 하십니다. 우리보다 힘이 약해서 그러시냐 하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에 대해서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팔을 잡아 당기시는 것도, 우리의 머리채를 끌어 당기시는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의 귀를 열고 정성을 다하여 그 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말씀은 아무나 듣는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다 듣는것은 압니다. 제가 음악을 가르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재능이 타고 난 사람도 있고, 또 노력을 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도 타고 난 사람이 있습니다. 백만에 백만에 백만에 하나 정도로. 그런데 보편적인 우리는 어떻게 듣느냐?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못 알아 들으실 겁니다. 팍스 보비스! 도미누스 보비스쿰! 옛날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보다도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아 듣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말씀이 우리 생각보다 더 확실하게 들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열린 마음안에 들어 오시어, 우리 이웃들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서로 도와가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 1 독서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1-11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래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업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4(103),1 ㄱㄴ과 24 ㄱㄷ.29 ㄴㄷ-30.31 과 34(◎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 2 독서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말씀입니다. 12,3 ㄷ-7.12-13<또는 갈라 5,16 ㄴ-25>

형제 여러분,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속가

<성령 송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 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 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23<또는 15,26-27; 16,12-15>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